

미디어에 나타난 ‘-었-+-어서’ 표현 연구

정수현(호서대학교)

1. 서론
2. 선행 연구 검토
3. ‘-었어서’ 표현의 의미 기능
4.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관련 표현 검토
5.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선어말 어미 ‘-었-’과 연결 어미 ‘-어서’가 결합하여 쓰이는 표현 사용의 양상을 찾아보고 그 표현의 의미를 해석해 보는 데 목적을 둔다. 전통적으로 연결 어미 ‘-어서’는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과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언어 현실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었어서’ 표현이 쓰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었-’과 ‘-어서’가 결합하는 양상을 일시적이거나 개인 특성에 기인하는 변이로 보고 비문법적인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변이로부터의 변화로 봐야 하는 것인지를 놓고 연구자들은 논의를 해 오고 있다. 아직도 ‘했어서’와 같은 표현에 대해 어색함을 느끼는 언어 사용자들이 많은 것은 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이유와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서’의 의미적 기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권재일, 1985:57-58).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잘못된 표현으로 확정하여 계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연결 어미 ‘-어서’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서’의 기본 의미가 시간적 전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과 결합한 ‘-었어서’는 시제의 겹침이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군더더기 표현이 된다. 그렇지만 한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일 때 그 문법적 제약이 같을 수는 없다. 연결 어미 ‘-어서’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면 ‘시간적 전후’를 나타내거나(행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연결함), 앞선 행위이나 상태가 ‘이유, 근거’(원인)를 나타내거나,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수 있다. 덧붙여, 앞선 행위가 목적임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들을 줄곧 있어 왔고, 최근 몇 년 동안 더 활발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최근 몇 선행 연구들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바를 정리해 보면서 ‘-었어서’ 표현의 실제 쓰임을 바탕으로 하여 그 의미 기능을 살펴보고, ‘-었어서’ 표현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교해 볼 수 있을 만한 ‘-었어 가지고’, ‘-랐어서’ 표현에 대해서도 실재를 제시

하고 기술을 해 보도록 하겠다.

2. 선행 연구 검토

김중수(2018)에서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사용된 ‘-었어서’ 예문을 수집하여 문법 수용도를 연령별로 조사하였다. 김중수(2018)은 문법적으로 틀린 것으로 인식되었던 언어 현상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언어 현상에 담긴 의미나 새로운 용법을 탐구해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영준(2018)에서는 ‘-았/었어서’ 표현 사용 이유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국어 화자의 수용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영준(2018)에서 특징적인 것은 인터넷 블로그 언어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년 단위로 빈도수를 조사하였는데 13개 어휘 ‘끝나다, 자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놀다, 만나다, 배우다, 마시다, 만들다, 사다, 살다, 좋아하다, 먹다’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였다. 이영준(2018)에서는 ‘-았/었어서’의 빈도 증가 추이가 2013년을 전후로 하여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조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화자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선행절에 시간 표현 명시가 되어 있다면 용인도가 높고, 선행절과 후행절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용인도가 높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영준(2018)과 김중수(2018)은 모두 ‘-었어서’ 표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신아영(2019)에서는 ‘-어서’와 ‘-었-’의 결합 양상과 작용역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서’가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에서만 ‘-었어서’와 같이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여러 용례들을 검토하였을 때, 신아영(2019)의 설명에 동의하는 바이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 ‘-었어서’를 쓰는 듯 본 것이다.

정해운(2022) 역시 ‘-었어서’의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김민영(2009)의 내용 가운데 ‘-어서2’(시간적 순차 관계를 나타내는) 역시 ‘-었-’과도 결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정해운(2022)의 특징적인 점은 ‘울타리 표현’으로서의 담화 전략 차원에서 ‘-었어서’의 의미 기능을 설명했다는 점이다. 울타리 표현은 ‘모호성, 공손성, 양태성’을 가지는데, ‘-었어서’로 접속된 문장은 ‘-어서’(‘-었-’이 결합하지 않은) 접속문과 비교하여 모호성을 가진다고 하면서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의미적 인과성 및 보편성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즉,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청자의 반박을 피하려는 의도를 반영할 때(청자 반응에 대비하여) ‘-었-’이 쓰인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었어서’는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긴밀성을 약화시키는, ‘-어서’와는 통사, 의미적으로 구별되는 기능을 가지며, 선행절의 내용이 과거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서, ‘-었어서 -는데’가 한 단위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배경을 나타낼 수 있음을 논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었어서’ 표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비문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관점에서는 그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어서’가 이유, 원인을 나타낼 때 ‘-었-’과 결합하는 일이 빈번하며, ‘-었-’을 통해 후행절의 행위와 상태와 거리를 두도록 단절시킨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의 연구들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었어서’ 표현은 더욱 용인이 될 수 있고, 선행절과 후행절을 단절시킨다는 점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었-’의 결합이 ‘-어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술할 것이라는 점이 차별점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었-’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 ‘-어 가지고’, ‘-라서’와도 결합하는 양

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행위와 상태의 시제를 구분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선행 연구에서처럼 비문법적인 표현이 용인이 가능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표현이라면 그 용법을 연구해 보고 변이가 변화가 되어 가는 점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었어서’ 표현을 주로 살펴해보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었어서’와 의미적으로 통하는 ‘-었어 가지고’ 표현, 조금 더 보태어 ‘-랐어서’ 표현 까지 용례를 모으고 이를 정리하여 기술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시들은 모두 네이버 포털에서 수집한 내용으로 ‘블로그’가 그 주를 이룬다. ‘블로그’로 한정된 이유는 구어적인 성격을 가진 미디어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¹⁾ 한편,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로 한정하였는데 이유는 정해운의 연구가 동일한 포털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면서 2010년부터 10년 동안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²⁾

3. ‘-었어서’ 표현의 의미 기능

‘-었어서’ 표현의 특성을 정리해 보기 위해서는 ‘-어서’와 ‘-었-’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제약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어서’의 의미, ‘-었-’의 의미 기능,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에 따른 특성, 통사적 특성에 따른 의미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앞선 연구들에서 ‘-어서’가 ‘-었-’과 결합하는 양상은 ‘-어서’의 의미가 ‘이유, 원인’을 나타낼 때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점은 동의하는 바이다. 선행절의 행위나 상태가 먼저 있고, 그 후에 후행절의 행위나 상태가 따르는 것이다. ‘-었어서’는 동사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형용사와의 쓰임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동사와의 쓰임에서 의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듯하였으나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인다.

[예문 1] ‘형용사+-었어서’

- 이케아에 간 두 번째 이유 허니가 옛날에 애 데려온 거 보고 넘 기여웠어서 나도 데려왔다
- 다 합체시켜 먹기엔 그릇이 너무 작고, 수박 당도도 좀 아쉬웠어서 그만.
- 체감온도 50도였던, 세상의 중심이었던, 호주의 아웃백의 바닥은 매우매우 뜨거웠어서 차도 열을 많이 받은 상태였거든요.
- 바로 가서 스카이워크를 신청했다. 사실 그네도 무사웠어서.. 걱정했다.
- 제주 바람이 너무 매서웠어서 따듯한 국밥으로 든든하게 마무리해서 좋았다.³⁾
- 나이키의 우븐 스티치 볼캡도 착용했었고 날도 추웠어서 오버핏 코트도 입었어요!!
- 지인의 주사 후기가 좀 무서(?)웠어서 긴장감을 잔뜩 안은 채 집으로 향했다.
- 원래 나스 컨실러 쓰고 있었는데 만족스러웠어서 미니사이즈 넘 좋았다
- 감귤 체험 특별한 감흥 없이 방문하였다가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서 사진 좀 찍어왔습니다.
- 이날 일도 바빴어서 진짜 하루 종일 정신없었다.

1) 이영준(2018)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었어서’ 표현 자체가 구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뉴스 등의 정제된 말로 구성되는 글보다는 구어적 성격을 가진 매체가 연구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2) 다만 추후에 논의를 확장하여 기율 때에는 그 기간을 늘려서 조사할 계획이다.

- 몽이에게 가던 길 구름이 넘 예뻐서 찍었다.
- 최근에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서 진땀 뻘었습니다.
- 그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지 하프엔하프 시켜서 둘이서 다 먹었어요.
- 이거 다 먹으면 병이 더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마니 아팠어서 도움이 컸다
- 기쁨보다 떨림이 더 컸어서 부담감을 못 이기고 무대 끝나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
- 이번 달에 지출이 너무 컸어서 당분간 소비를 줄여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 밤새 몸이 너무 아팠어서 엉덩이 주사 맞으러 병원에 감

[예문 2] '동사+-었어서'

- 청담 프리미엄 리셉을 함께했어서 즐거웠어요
- 버터 때 흑발 했어서 난리 났었던 정국
- 평소에 흥미로워하는 분야기도 했어서, 3주 조금 안 되게 회계관리 준비기간을 잡고 시작했었어요.
- 저는 이 자른 형태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했어서, 컵을 넣으면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 전날에 좀 과음을 했어서 꽃게탕 세트로 주문했어요
- 수입제품들도 부담 없이 가능했어서 시간 내 가볼 가치가 있던 곳이라 느꼈어요
- 물건 수만 많이 채워두려는 매장들이 간혹 있기도 했어서 제가 찾는 건 어려웠어요.
- 우리는 추석 연휴 기간 그냥 집에 머물기로 했어서 땅콩이가 집으로 귀환함
- 블썸에서 지난 1주를 공식 휴무(?)를 했어서 나도 같이 쉬고 돌아옴!
- 오늘은 건강검진 하러 갔어서 힘이 없어서 홈트 설겄요ㅠㅠㅠㅠ
-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 해서 조금 불편했지만 운동화를 신고 갔어서 편하게 벗었어요.
- 저도 꽃둥이랑 같이 갔어서 남편이랑 번갈아 애 돌보며...
- 일부러 점심시간 피해서 갔어서 입장할 때 자리가 넉넉했다!
- 평일에 갔어서 그런지 다행히도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 나이프가 도착을 안 했어서 집에 있는 빵칼로 작업했다.
- 마오타이는 중국 본토에서 진작에 난리 났어서
- 야채와 기본소스가 생각보다 잘 어우러졌던 기억이 났어서 시켰고 주변 분들에게 한입씩 맛보여주었다.
- 한정식 집 느낌도 났어서 분위기가 좋던 잠실새내 맛집이었죠.
- 지하에서 엘베 기다리는데 음식 냄새가 좀 나는 느낌? 근데 뭐 또 로비에서는 냄새가 안 났아서.
- 지하 일층에 있다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어서 배웠당
-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마에 심하게 났어서 화장품도 자극 없는 거 바르고, 에스파다로 짐중 트러블 관리를 해줬어요!
- 약간은 질긴 식감이 났아서 약간 애매했었는데요.
- 계란을 추가하면 하나 더 나오는 건지 몰랐어서 너무 많이 시켜 버림.
- 그 친구 얼굴을 클럽이 어두워서 자세하게 보진 못했지만 희미하게 기억은 난다. 내가 너무 놀랐아서.
- 그런 느낌이 드는 곳들도 있었어서 이런 단독 예약하는 곳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3) '매서웠지만'으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개인의 특성에 따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

○ 반스 신발은 저렴하게 샀어서 하나 더 사도 되겠다 싶었고

한편, ‘-었어서’ 표현을 고민할 때, 연결 어미 ‘-어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었-’의 의미 기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김중수(2018)에서 설명한 것처럼 선행절에 시간 부사어를 쓰면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어서’가 쓰인 선행절의 시제가 결정된다. 선행절이 발화시보다 과거임을 표현하고 싶을 때 화자는 전략적으로 ‘-었-’과 ‘-어서’를 결합하여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서’와 쓰인 ‘-었-’는 이유와 근거, 원인을 나타내는 선행절에 쓰이는데, 이러한 양상은 후행절의 행위나 상태가 선행절과는 다른 시간에 생긴 사건이라는 점을 단절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과 같은 예시는 자신의 경험을 축소하여 나타내어 타인에 대한 부담을 더는 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정해운(2022)에서도 있었다.

○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어서 여러분께도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한편, 신아영(2019)에서는 이영준(2018)에서 주장한 후행절이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용인도가 낮다’고 한 점에 대해 후행절에 화자의 상태가 나타난 경우 용인되는 문장을 제시하였다. “방탄소년단 컴백 앨범이 드디어 나왔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공연 내내 긴장했어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네요.”가 그 문장인데 이 문장의 용인도는 사람마다 다른 듯하지만 실제로 “오늘 급식 맛있는 거 나왔어서 기분 좋다.”와 같은 유튜브 제목이나 “오늘 비 왔어서 다들 배달만 먹나 봐요.”와 같은 카페 글 제목, “정말 만족하고 왔어서 추천해 드려요.” 블로그 내용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오늘 비가 왔어서 다들 배달만 먹나 봐요.”는 “비가 왔어서 계곡물이 많이 불었다.”라는 문장과는 후행절의 시제의 차이가 있지만 ‘비가 왔다’는 사실이 ‘배달 주문이 많은 상황(현재)’과 ‘계곡물이 많이 불은(과거)’와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점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정말 만족하고 왔어서 추천해 드려요.” 역시 ‘만족한 경험’은 ‘추천’하는 지금과는 다른 시간의 사건임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정말 만족하고 와서 추천해 드려요’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후행절이 현재임을 나타내는 표현에서도 선행절의 ‘-어서’에 ‘-었-’이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은 ‘-었-’의 기능을 과거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아닌 상, 양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래의 예시를 더 보면 형용사와 쓰인 경우에도 후행절의 행위, 상태와 비교하여 선행절의 상태가 과거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예문 3] 후행절의 시제가 모호하거나 현재인 예문

- 이미 지났지만... 바빴어서 이제 글 올려 봅니다.
- 그래도 힘든 만큼 예뻐서 만족
- 최근 상승폭이 컸어서 관망 필요
- 객적으로 전관행사는 두 번째인데 조지아 위챗데이 때 너무 험자로웠어서 오늘의 하나카드 행사는 많이 아쉬움이 있다.
- 처음에 올라갈 때가 제일 아팠어서 발이 막 절로 오므라져요

- 우린 너무 어린 사랑을 했어서 마지막에 어른인 척하기가 힘들어
- 그나마 싸게 샀어서 다행
- 미리 인터넷 구매로 올데이 패스 샀어서 팔찌로 바꾸려 갑니다.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문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문법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장이 실제 쓰임에 쓰이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므로 문법성 판단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위 [예문 3]에서 “그래도 힘든 만큼 예뻐서 만족”, “최근 상승폭이 컸어서 관망 필요”, “그나마 싸게 샀어서 다행”은 후행절이 단어, 구 수준의 표현이다. 이때에도 선행하는 행위, 상태가 후행절보다는 앞선 것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앞선 절이 이유나 원인이 되는데 이유나 원인이 경험적으로 더 과거임을 나타내고 그보다는 후행절의 결과로서 나타난 행위나 상태가 조금 더 뒤인 것임을 경계 짓기 위한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었어서’는 뒤에 따르는 절에 또 다른 연결 어미인 ‘-는데’와 결합한 구문과 함께 어울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해운(2022)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예문 4] -었어서+...+-는데

- 혼자 이사해야 했어서 걱정 많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책임져 주시구
- 기내 배낭 무게 체크 안 했어서 다행이었는데 비엿젯은 알뜰없다
- 원래 월영당은 전에 샀어서 이번에는 새로운 곳을 가고 싶었는데...
- 제가 여태껏 먹어봤던 우설은 퍽퍽하고 비린내가 났어서 우설에 대해 편견이 좀 있었는데
- 너무 짜증이 났어서 아예 안 가려고 했는데
- 어렸을 땐 아이들 코피가 자주 났아서 코피 자주 나면 연근요리가 좋다는 소리 듣고 이것저것 해줬는데 그중에 젤로 잘 먹는데.....
- 구입했을 당시 보호 커버가 이렇게 깨질 줄은 미처 몰랐어서 하나만 샀었는데
- 애플워치8 나오기 전에 샀어서 걱정했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오히려 구매하길 잘할 거 같아요
- 한글 살 땐 내가 안 사고 엄마가 샀어서 얼마지는 모르겠는데
- 몇 년 전에도 오려고 했었는데 휴무였어서 못 왔는데 드더 옴
- 낮잠은 원래 잘 안 샀어서 그렇다 치는데

정해운(2022)에서는 위와 같은 표현들에 대해 접속문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는데’는 후행절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 쓰이고, ‘-는데’에 앞서는 ‘-었어서’가 울타리 표현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었어서’가 울타리 표현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배경을 설명하는 ‘-는데’와 어울러 쓰이는 점이 더욱 적합한 의미적 기능을 보이므로 이러한 구조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필자로 이 주장에 동의하는 바인데, ‘-는데’가 쓰이지는 않았으나 후행절이 내용이 배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법한 문장들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4.1.에서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다.

4.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관련 표현 검토

이 장에서는 ‘-어서’와 관련되는 표현인 ‘-아 가지고’, ‘-라서’와 ‘-있-’의 결합 양상을 살펴본다.

4.1. ‘-아 가지고’

‘-아 가지고’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따르면 앞뒤 행위가 순차적으로 일어남을 나타내거나 앞선 행위나 상태가 뒤 상황의 방법이나 수단, 원인, 이유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문법적 제약은 ‘-어서’와 마찬가지로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붙어서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의 용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보기 1] ‘-아 가지고’의 쓰임

- ① 돈을 모아 가지고 아주 예쁜 차를 살 거예요.
- ② 물고기를 직접 잡아 가지고 찌개를 끓였어요.
- ③ 야채를 씻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 ④ 한국어를 공부해 가지고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 ⑤ 이 감자를 집에서 삶아 가지고 오세요.
- ⑥ 집에서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
- ⑦ 어제 잠을 못 자 가지고 아주 피곤해요.
- ⑧ 주말엔 바빠 가지고 연락을 못 했어요.
- ⑨ 그렇게 멍청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의 용법에서는 ①~⑥, ⑦~⑨를 나누어 풀이하고 있다. ①~⑥은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쓰임으로, ⑦~⑨는 앞선 행위와 상태가 뒤에 이루어지는 행위나 상태의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예들 가운데 ⑦, ⑧에 쓰인 단어 ‘자다, 바쁘다’는 ‘자어 가지고’, ‘바빠어 가지구’로도 나타난다.

‘-어 가지고’가 ‘-있-’과 쓰인 실제 예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예문 5] ‘-있어 가지고’ 실제

- 취미로 소설을 조금 썼어 가지고!
- 전 별생각 없이 시작을 했어 가지고 기왕이면 범용성이 많은 국제 자격증으로 선택을 했어요.
- 마스크 재사용을 좀 많이 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었나 봅니다.
- 학점은행제 온라인수업은 따로 출석하는 것도 없이 시험도 집에서 했어 가지고 당연히 어렵지는 않았어요.
- 저희는 다른 부서에 예약을 했어 가지고 다시 갔다 왔거든요.
- 해운대 상국이네 먹고 싶다고 했어 가지고 바로 택시 타고 고고씽
- 어렸을 때 중국 무협 드라마를 애정했어 가지고 비슷한 스타일이라서 눈길을 사로잡더군요.
- 장미맨션이 의외로 화제가 되지 않고 조용하게 끝이 났는데요. 저는 감상했어 가지고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 배고왔어 가지고 사진은 이게 끝
- 기출문제만 봤어 가지고 그런지 한번에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 근데 좀 많이 땀어 가지고 다 못 먹었습니다.
- 간절함이 굉장히 컸어 가지고 덕분에 인내심을 갖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점심에 화덕피자가 너무 컸어 가지고 남겨서 싸 왔거든요.
- 저는 밴드형만 주로 샀어 가지고 구멍에 기우는 건 없었어요.
- 오늘 거의 객석 다 샀어 가지고 첫 타임이지만 안전빵으로 영화 끝나자마자 빨리 나왔음.
- 평일 밤인데도 자리가 거의 샀어 가지고 카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 공복으로 갔어 가지고, 하체하고 다 털리고 나니 꽤고파서 유산소 땀 힘이 없었...
- 우린 딱 운행정지 하루 전날 샀어 가지고 이런 행운이.
- 계속 생각났어 가지고 이번에도 이 메뉴를 또 시켰어용
- 저는 날거 먹었을 때 배탈 났어 가지고 조금 더 익혀달라고 했어용.
- 내가 선 곳이 앞에서 엄청 대량으로 장본 사람들이 섰어 가지고 계산까지만 3-4분 정도 걸린 것 같다.
- 다시 보니까 장애인용에 줄 섰어 가지고 완전 빨리 들어감
- 하필 맛있는 수박을 샀어 가지고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죠
- 난 콧 먼세에서 샀어 가지고 정확히 10만 원 더 싸게 구매했었음
- 과제 제출 전날이면 항상 학교에서 샀어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자면 편할지 찾아 헤메는데
- 9시 그쯤 샀어 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서브웨이 오픈 시간 기다렸다가 바로 갔다 왔다.

그러나 ‘-었어서’를 비문법적인 것으로 보았던 것과 같이, ‘-아 가지고’ 표현이 동사나 형용사 어간이 아닌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는 것을 비문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직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으나 위의 표현들에서 ‘-었-’의 쓰임이 용인되는 지점이 있다. 그 이유 또한 3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래 앞뒤의 행위가 선행절, 후행절 순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남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해석이다. 그러나 선행절의 행위와 상태가 후행절의 행위와 상태보다 앞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위의 예시 가운데 “장미맨션이 의외로 화제가 되지 않고 조용하게 끝이 났는데요. 저는 감상했어 가지고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와 같은 문장에서는 자신의 감상한 바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자신의 경험을 약화시켜서 자신의 주관에 반영될 수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과 구분 지어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양태적 쓰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3장에서 언급했듯 정해운(2022: 345-348)에서는 ‘-었어서’ 접속문의 통사적 특성을 기술하면서 ‘-었어서’ 접속문에서 후행절이 다시 ‘-는데’로 접속되는 예문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접속문의 상관관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는데’는 후행절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어미인데, ‘-었어서’가 올타리 표현으로서 기능한다고 설명하는 데 ‘-는데’와 어울려 쓰이는 점이 더욱 적합한 의미적 기능을 보인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속 결합은 ‘-아 가지고’ 구문에서도 나타남을 이번 연구의 데이터에서 발견되었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예문 6] -아 가지고+...+-는데

- 용마산 등산할 때 도봉산행 열차를 많이 탔어 가지고 생각나서 물렛에 넣어봤는데 그게 나올 줄이야.
- 한창 점심시간일 때 갔어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북적거리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 그 주에 물난리가 났어 가지고 일행과 가는 날에 비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 좀 했는데
- 아몬드가루도 샀어 가지고 아몬드가루로만도 구워봤는데 중력분 쓴 게 훨씬 더 맛있었어요.
- 금요일에 내가 또 온다고 했어 가지고 자기들이 뿔아서 두겠다고 하는데 바로 인증샷을 찍고 싶어요.
- 첫째는 태권도 갈 때 제가 중간 픽업 했어 가지고, 갈아신고 갈 요량으로 구매했는데
- 비 온다 했어 가지고 사이클 타려고 했는데 비가

3장에서 언급했듯 ‘-었어서’가 울타리 표현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배경을 설명하는 ‘-는데’와 어울려 쓰이는 점이 더욱 적합하여 이러한 구조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는데’가 쓰이지는 않았으나 후행절이 배경으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문장이 있다.

[예문 7] 후행절을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문들

- 솔직히 거의 3개월에 한 번은 매직 스트레이트를 했어 가지고 머리끝에는 정말 많이 상해 있었던 터라
- 한번은 흐리고 비 오는 날 탔어 가지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날씨가 좋길래
- 계속 채하고 워 아팠어서 커피를 못 먹다 보니 맛있는 커피가 먹고 싶어서 찾아왔다.
- 영덕 대개 목적으로 온 만큼 기대가 컸어서 혹시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 나무가 진짜진짜 컷어서 겨울에 동백역 가서 꽃 구경하면 진짜 예쁠 것 같음!

[예문 7]에서는 후행절에 ‘-었던 터라’, ‘-길래’, ‘-다 보니’, ‘-었지만’, ‘-면’이 쓰인 것인데 이는 ‘-는데’와 비슷하게 배경으로 해석할 만한 것들이다. 이때 ‘-었-’이 결합하지 않은 표현으로 바꾸어도 어색하지 않은 표현들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겠다.

4.2. ‘-라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랐어서’ 표현을 발견하였고, 이 표현이 직관적으로 크게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먼저 예문을 보인다.

[예문 8] -랐어서

- 지금까지 손흥민만은 무조건 쓰는 전술이였어서 손흥민 없이 치르는 이번 아이슬란드전이 어떻게 될지 진짜 기대됨
- 저는 완전 초창기였어서 멤버들 가격을 따로 받지 않았는데
- 어제 할머니 생신이였어서(알고 보니 오늘이래) 생신평티 헤드릴라고 또 시내 가서 케익 사고 신촌으로 다시 돌아오고
- 이날 컨디션이 그닥인 너낌이였어서 간편하게 수업 갔다가 후딱 집에 왔다.
- -0.1은 열자리 30대 아저씨 손님들이 막 크게 이상한 말하면서 떠들고 별로였어서.....
- 부암동이라는 낯선 동네였는데, 요트를 못 타고 온 전시회였는데 그래도 재밌는 전시회였어서 좋았다. 진짜!!
- 저는 빈속이였어서 그냥 바로 먹었음
-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던 것도 예전이였어서 그런가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왔어요

위의 예문들은 맥락상으로 보면 ‘-라서’가 쓰여야 하는 문장들이다. 사실 위에 쓰인 ‘-랐어서’는 문법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따르면 ‘-라서’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이다, 아니다’에 붙어 쓰인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의 용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보기 2] ‘-라서’의 쓰임

- ① 내일은 공휴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습니다.
- ②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모자라서 자주 쓰고 다닌다.
- ③ 똑똑한 아이라서 타이르면 금방 알아들어요.
- ④ 저는 미성년자라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위의 용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라서’는 ‘공휴일이라서’, ‘모자라서’, ‘아이라서’, ‘미성년자라서’ 등으로 쓰이고, 이때 ‘-라서’는 ‘-아서/어서’로 치환할 수 있다. 각각 ‘공휴일이어서’, ‘모자여서’, ‘아이여서’, ‘미성년자여서’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과거를 나타내는 ‘-었-’과 쓰일 수 없다. 위의 예시들은 모두 후행절이 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앞선 표현이 과거로 표현되면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랐어서’의 실재를 보면 과거를 표현하고자 했던 듯싶다. 즉, ‘-였어서’을 쓰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선행절을 후행절의 시제와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번’의 예시는 ‘전술이였어서’, ‘초창기였어서’, ‘생신이였어서’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랐어서’의 의미와 기능을 추측할 수 있으나, 이를 분석하는 일은 어렵다. 분석에 있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랐어서’를 ‘-라서’와 관련하여 분석하려면 ‘-라서’는 한 형태소이므로 한 형태소 중간에 ‘-었-’ 개입하면서 ‘어’가 첨가되는 일을 설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였어서’ 앞에 ‘-라’가 결합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때는 연결 어미 ‘-라서’와 비슷하게 쓰이는 연결 어미 ‘-라’를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연결 어미 뒤에 선어말어미, 그리고 그 뒤에 또 연결 어미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어찌 되었든

현대 국어 안에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4.2.의 예문들은 비문법적인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문법적인 것에 관한 추이, 이유, 쓰임의 양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예문의 쓰임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더 고찰하여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문법성 수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5. 결론

지금까지 ‘-었어서’, ‘-었어 가지고’, ‘-랐어서’ 표현을 살펴보았다. 이미 ‘-었어서’ 표현의 비문법성과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선행 연구들 가운데 최근의 몇 개를 중심으로 견해를 정리하면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기술하였는데 해당 논의들과 맥락이 비슷하였다. ‘-었-’는 시제 표현 측면에서는 과거를 뜻하지만 시제 표현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후행절의 시제로 표현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어서’와 쓰이는 경우에는 후행절과 선행절의 시점을 구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요약적으로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표현의 양상은 연결 어미 ‘-어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 가지고’, ‘-라서’가 쓰일 표현에서까지 확장되어 쓰이고 있음으로 보였다. ‘-었-’ ‘-어서’의 의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나 ‘-어 가지고, -라서’ 표현에서까지 이러한 점을 확인한 점은 이 연구가 차별화될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었어서’에 대한 양적 연구는 이미 밝혀진 바가 있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4장에서 살펴본 이유, 원인과 관련한 접속문에 대한 양적 연구는 필요할 듯싶다. 또한 형태, 통사적인 제약 관계에 대한 연구도 면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 발표를 시작으로 하여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말의 설명을 더욱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참고문헌>

- 강계림, 상황상에 따른 연결어미 “-어서”의 의미 분화, 한말연구 40, 한말연구학회, 2016, 5-31.
 권재일,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1985.
 김건희, 연결 어미 ‘-고서, -아서/어서, -(으)면서’에 나타나는 ‘서’의 의미기능, 국어학 65, 국어학회, 2012, 109-155.
 김민영, 한국어 접속문의 시제 해석, 한국어학 제43권, 한국어학회, 2009, 69-104.
 김중수, ‘-어서’와 결합한 시제 선어말 어미의 문법성과 교육적 함의, 문법 교육 제34호, 한국문법교육학회, 2018, 27-57.
 박진호, 시제, 상, 양태, 국어학 제60집, 국어학회, 2011, 289-322.
 박진호, ‘-었었-’의 단절과거 용법에 대한 재고찰, 한글 311, 한글학회, 2016, 89-121.
 신아영, ‘-어서’ 접속문에서의 ‘-었-’ 결합 양상 및 작용역, 겨레어문학 제63집, 겨레어문학회, 2019, 221-248.
 이영준, 「연결어미 ‘-아/어서’와 시간 표현 사용 양상 분석」, 우리말글 제77집, 우리말글학회,

2018, 1-21.

이은경,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태학사, 2000, 1-317.

이은경, 대등 접속문의 시제 표현, 국어학 73, 국어학회, 2015, 141-172.

장경희, {-어서}의 의미와 화용상의 해석, 텍스트언어학 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994, 169-200.

정해윤, '-었어서' 접속문의 담화적 기능, 언어와 문화 1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22, 331-352.

최성호, '었'의 의미와 통사, 한국어 의미학 67, 한국어 의미학회, 2020, 121-163.

최성호, '었'의 의미론과 맥락, 언어학 제90호, 한국언어학회, 2021, 23-59.

황화상, 「연결어미 '-어서', '-니까'의 의미 기능과 후행절 유형」, 국어학 제51집, 국어학회, 2008, 57-88면.